

어떤 주제의 책인가요?	소속을 선택하세요.	도서관명을 알려주세요.	이름을 알려주세요	추천하시는 책의 제목은?	추천 책의 자자는 누구인가?	추천 책의 출판사는 어디?	책 속의 한 줄이나 감상평을 적어주세요.					
12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강원지부	뒤두르어린이도서관	김효심	지녁이면 눈 냄새가 난다	사라 스트리츠베리	위고	나는 눈을 감고 천까지 수를 셀 거야. 그리고 뭉을 돌리면, 다시 네가 있을 거야. "이제 샌다. 하나 ..."					
12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경기북부지부	예다올작은도서관	백정희	여전히 나는	다비드칼리 글 모니카 바르	오후의소요	당신은 알까? 여전히 나는 그곳에 가, 하루도 빠짐 없이.					
12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경기북부지부	평화들품은집 평화도서관	황수경	남아있는 모든것	수 블랙	밤의 책	법의학자인 자자는 그 많은 주검들을 보며 어떻게 트라우마 없이 살 수 있었을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건 아닐까? 라는생각을 끝없이 했다 그 해답이 마지막에 그녀만의 해결방법을 소개해 놓은 글이 있다. 그녀의 내면에 묻지방에 있었다는걸 알았다. 자기만의 방을 설정해 그 방을 나올때 철저하게 잠겨놓는다는것 을... 이런 그녀만의 치유방법이 나를 설득시키지는 못했다. 아직도 사람이 할수 없는 정신세계를 가졌다는것은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12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서울동부지부	슈필러움작은도서관	장명숙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김기태	문학동네	구르더라도 부서지진 않았지					
12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서울서부지부	대조광나무어린이도서관	채정숙	<곰씨의 의자>	노인경	문학동네	햇살이 눈부신 날입니다. 시집을 읽기에 좋은 날이지요..... 며칠 뒤, 곰씨는 토끼를 앞에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하나하나, 천천히 말했습니다.					
12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울산경주지부	극동푸른작은도서관	이진영	강정호텔	리디아 브란코비치	책읽는곰	다양한 강정들이 잠시 머물다가도 괜찮다고 다정하게 얘기하는 책					
12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울산경주지부	다올림작은도서관	박정자	쉼먼디자인	라 우루 후	김영사	나 자신을 알아가기 위한 가장 과학적인 책이라 놀랍다					
12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울산경주지부	명덕이음작은도서관	김영란	다른 길로 가	피터H레이놀즈	우리학교	"살이 그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나요? 걱정하지말고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아요~~ 다른길로 가면 되요"					
12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울산경주지부	하랑작은도서관	배수경	코끼리새는 밤에 난다.	신세은	바람의 아이들	타인에 대한 이해를 청소년들의 삶에 녹여 넘치시 알려준다.					
12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제주지부	섬문대어린이도서관	김미영	한 여름 밤의 꿈	찰리엄 셰익스피어	밀음사	책여우라는 엄마동아리에서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함께 읽으니 재밌어요. 한겨울, 한여름밤 재밌는 소동에 빠지다. 눈으로만 볼때와 다르게 소리내어 낭독하니 이해도 잘되고 재밌었다. 낭독의 재미에 빠진 엄마들^^					
12월의 주제 <우리 도서관	충청지부	성성푸른도서관	박민주	완벽한 날들	메리 울리버	마음산책	자연과 고독, 기쁨과 상실을 오가며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부드럽게 말 건네는 잔란한 하루들의 기록.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경기북부지부	고양작은도서관	김나현	폭풍이 쫓아오는 밤	최정원	창비	주인공들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만 같은 일상에서 자의로든 타의로든 뺄겨져 나옵니다. 그들이 긴 여정을 마치고 빛나는 무엇인가를 손에 들거나 마음에 품고, 조금도 변하지 않은 내 집 문을 여는 순간을, "다녀왔어."라고 말하는 순간을 사랑했습니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울산경주지부	문수산산삼작은도서관	문신임	다정함이 인격이다	김선희	나무생각	생각과 관점, 욕구, 살아온 역사가 각기 다른 이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선 비판 앞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 p103					